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빠는 힘들지 않아!”

올 해가 막 시작되던 2006년 1월 2일,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한 탄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지하 78m의 광산 채굴장에 있던 광부 13명이 매몰된 사고 소식을 신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얼마 후 그 사건 속에 눈물겨운 사랑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매몰된 그들에게는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광광한 어둠과 석탄은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차단시킨 무서운 벽이 되었습니다.

각각 매고 있던 산소통 안의 공기가 줄어들 때, 13명의 광부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매고 있는 산소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몇 시간 후면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남은 산소를 한사람에게 몰아주면 분명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광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의 끝에 12명의 광부들은 자신의 산소통을 어린 아이 둘을 가진 젊은 광부 <랜달>의 주변에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 했습니다.

광부들이 매몰 된지 이틀 만에 발견되었을 때에 12명의 광부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 되었지만, 젊은 광부 「랜달」만이 겨우 맥박이 남아있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산소통을 젊은 광부에게 건네준 광부 가운데 한 명인 「마틴」의 주머니 속에는 어둠속에서 죽어가면서 쓴 희미하고, 휘갈겨 쓴 마지막 순간의 힘겨운 말들이 고스란히 적혀있었습니다.

“아빠는 힘들지 않단다. 잠드는 것뿐이야... 사랑한다”



◀그리운 날의 흑백TV ▶ 전 투 Combat
 지금도 앞 부분은 기억에 남아있는 시그널 음악과 울림있는 남자 성우의 멋진 소리로 “Combat! The Staring! 빅 모로 and 릭 제이슨” 이란 멘트는 펍 인상적이었습니다. 2차대전을 배경으로하여 Vic Morrow가 강렬한 인상을 주는 손더슨 중사로 나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생사가 달린 전투속에서도 손더슨 중사의 부하사랑은 극진하고 그 분대가 겪어 내는 전우애는 전쟁속에서도 결코 외롭지 않았습다.
 그 후 영화 촬영도중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보았을 때 추억까지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 내는 기도생활(마태 7:8)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8권 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2월 5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식을 전할 이는 주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에서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내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비워두므로 가난은 슬픔이 아님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동안 참아 온 눈물, 주님 앞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놓기 위함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내 수고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부끄러운 생각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아이처럼 혼나기 위함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찾아가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산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내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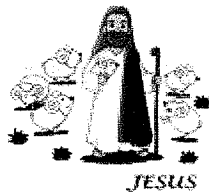
◀말씀따라 행하기▶
 하나님 없는 노력은
 성공 같으나
 결국은 실패다

◀인품따라 행하기▶
 신념에 불타는 사람을 사귀라
 좋은 사람은 우람주식이다
 부정적인 사람은 만나지 말라
 그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492장	다 같이
기도 Pray		김교섭 장로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특송 Singing	Russian Singing Angels Choi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빌립보서 4:6-7	인도자
설교 Sermon	인생의 힘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88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2월 예배위원◆

◆2월의 교회력◆

일자	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안 내
5	김교섭	이영성		<본당>노은숙 김순자
12	김순자	이재윤		
19	김영길	이지형		<입구>정덕수 이재영
26	지찬영	정성호		

주 일	예배와 모임
5	러시아합창단 방문 *남선교회(3) "남성만의 르네상스" *구역예배(10)
12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4)
19	여선교회(24) "여성만의 Heaven"
26	이삭줍기주일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이사, 이민으로 교회를 찾으신다면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바른 판단이 섭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2시

1. 교우소식

<출산을 축하합니다>

*조여진 성도(추미선 집사 장녀). 득녀.

*이명숙 성도(정덕수 장로. 김순자 권사 자부). 득녀.

<이사> 박완배, 전미경 성도 ☎ 630-1134 271/E Manukau Rd. Epsom

2.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출

*지난 주 투표결과: 장로 3인(박일영, 장현중, 최재학)

권사 4인(윤주야, 이금선, 임혜자, 임병숙)

안수집사 9인(고성일, 권용일, 백재성, 양경배, 이근평, 정관영, 조용건, 최득수, 현석호)

3. 정기구역예배 <금주 금요일(10일) 저녁 7:30>

*새롭게 구성된 구역식구와 함께 나누는 기도와 교제 되시기를 바랍니다

4. 정기당회. 예배 후 모임이다.

5. 수요일예배: "민수기 성경강해" <수요일 저녁 7:30>

*

6. 교회요람 제작을 위한 안내

1) 주소, 전화번호 변경되신 교우께서는 알려 주십시오

2) 교우사업체 상호를 알려 주십시오(2005년 요람기재 사업체 제외)

◀착한 시인▶ 편지를 붙이며

이안놀

집에 보낼 편지에
괴로움 말하려다
흰머리의 아버지가
근심할까 염려되어,
그늘진 산 쌓인 눈이
깊이가 천 길인데
올 겨울은 봄날처럼
따뜻하다 적었네.

잘 지내고 있으니 염려 말라던 부모님의 말씀을 거짓인 줄 알면서도 진심인 것처럼 믿고 싶었던 내 젊은 날. 그때 왜 춥다고 말씀 안하셨냐고, 왜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자식들에게 주었다고 물을래도 찾아와 준 아들내외에게 풀밭 무덤 속에 누워 '오늘 바깥 텐데 왜 찾아왔냐'고 또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무덤가에서-